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제764호

2018년 KBA협동조합 주주총회 공고

- 일시 : 2018년 12월 4일(화) 오후 1시
- 장소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el (416)789-7544



2017년 제35차 KBA협동조합 정기주주총회에서 (Dec.5/2017)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검색창에
OKBA를
입력하세요.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국적 대규모 기회!



Super Draws

추첨일
2018년 11월 24일
\$50,000
보장 상금 **50**개

\$1백만 보장 상금 & 잭팟



분주한 연말연시 휴가철이 다가오는 이때,
연말연시용 즉석 복권을 충분히 확보해
진열해두십시오!



12월 6일 & 10일, 단 2회!

평생 동안 매년 \$25,000를 지급하는 보너스 추첨 5개
단말기 배너를 게시하십시오. 이 2회의 보너스 추첨을 겨냥한 사전 복권 구매를 권유하십시오!

팩 처벌 - 처벌 제도의 이유와 처벌을 피하는 법!

OLG는 활성화되지 않은 즉석 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한 소매업자에 대해 팩 처벌 (Pack Penalties)을 적용합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복권을 구매한 고객은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객 불만을 발생시키고, 종종 소매업자와 고객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며, OLG 지원센터 (Support Centre)로 항의 전화가 오게 합니다. 팩 처벌의 목적은 소매업자가 재고 관리에 주의하여 활성화된 복권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12월에는 팩 처벌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즉석 복권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판매되는 팩 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주한 연말연시 휴가철에는 흔히 매장마다 더 많은 시간제 직원이 근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크므로, 활성화되지 않은 복권이 실수로 판매될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번 연말연시 휴가철에는 조금만 시간을 내서 직원들에게 이 점을 주지시켜 반드시 활성화된 즉석 복권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팩 처벌을 피하십시오!



OKBA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 Publisher

Jae Gyun Shin (신재균)
Tel (416)789-7891(ext.70)
e-mail.sjg0061@gmail.com

■ General Manager

Don Cha (전무 차동훈)
Tel (416)789-7891(ext.30)
e-mail.doncha@okba.net
▶ 대정부활동 및 실무 총괄

■ Business Manager

Sunny Chon (실장 전승원)
Tel (416)789-7891(ext.21)
e-mail.sunnyc@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Business

Brian Lee (이주녕)
Tel (416)789-7891(ext.26)
e-mail.brianjn1108@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Accounting

Sei Hwan Kim (김세환)
Tel (416)789-7891(ext.24)
e-mail.accounting@okba.net
▶ 리베이트
▶ 대외 A/P, A/R
▶ 실험사무 관리

■ Reporter

Kwangil Kim (실장 김광일)
Tel (416)789-7891(ext.23)
e-mail.tedkim@okba.net
▶ 실험뉴스 취재
▶ 기사제보
▶ 홍보사항

■ Design

Mi Young Hyun (현미영)
Tel (416)789-7891(ext.22)
e-mail.mimihyun@okba.net
▶ 광고 / 편집 디자인
▶ 인쇄 및 홈페이지 관련
▶ 광고문의

■ Website

www.okba.net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가을과 겨울이 만날때...

C O N T E N T S

04~07 | 임페리얼 담배 보관함 제공 관련 계약서

08~09 | 조합 주주총회에 즈음하여

10 | 2018년 KBA 협동조합 주주총회 공고

11~12 | AGCO, 협회 위해 직접 설명회 개최
피터보로 지구협회 연말 파티

13 | NCACT, 온주 불법담배 실태 발표

14 | 필립모리스 차세대 IQOS 출시

15 | 킹스턴 지구협회 송년의 밤
사푸토 실험회원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16 | "편의점, 정신 안차리면 베이퍼시장 잃어"

18~19 | 교양 상식 : 추한 섬과 추한 대법원장

20 | "편의점, 정신 안차리면 베이퍼시장 잃어"
NCACT, 온주 불법담배 실태 발표
스카보로 지구협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오웬사운드 지구협회 송년 파티

21 | OKBA 지구협회장 전화번호
2018년 협회 주요 사업

22 | Directory



임페리얼 담배 보관함 제공 관련 계약서

최근 임페리얼사 직원이 일부 회원 업소를 방문해 계약서 하나를 건넸다. 내용은 일반담배 및 베이퍼 담배를 보관하는 보관함 설비 무료 제공과 무료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소매업주의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에 이미 체결돼 있는 일반담배 관련 계약서인 '소매업소 계약서'(Trading Terms and Conditions for Retail Customers)와는 별개의 계약서로 차세대 담배제품(New Generation Products)인 쉘런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베이퍼 제품 판매망 구축의 본격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인다.

본부협회가 회사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 몇가지 사항을 회원들이 유념해야 한다.

- 계약 체결은 업주의 선택사항이다. 계약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기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든가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모든 업소에 본 계약서를 제시한 것도 아니며 대략 2% 전후의 회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접촉하지 않은 업소들은 더욱 신경쓸 것은 없다.
- 보관함 전체 공간에서 임페리얼에 할당해야 할 몫은 50%이다. 이하 계약서 전문을 번역 소개하니 해당되는 회원들은 이해득실의 셈법

을 신중히 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계약서

임페리얼 토바코(이하 ITCO 혹은 회사)는 다음과 같은 계약기간과 조건에 따라 덮개(flap)나 선반(shelf) 혹은 캐비닛(cabinet) 등 여하한 형태로 구성되는 바이프(Vype)판매장을 포함한 뒷벽담배보관함 (Backwall Storage Space ; 이하 '보관함')을 제공한다. (*Vype는 임페리얼의 베이퍼 브랜드명)

1. 본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기존 소매업자 계약서(Trading Terms and Conditions for Retail Customers)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본 계약서는 ITCO의 소매업자 계약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련된 어떠한 조항이나 조건을 수정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

2. ITCO는 수주내로 귀하 업소내에 보관함을 설치한다. 보관함의 구성은 (덮개나 선반 혹은 캐비닛이 설치된 Vype 판매장이 포함됨) 회사가 결정해 제공한다. 계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동 보관함의 소매가치는 \$5,000

SIGN UP WITH MONERIS AND GET **PREFERRED RATES** THROUGH THE OKBA MEMBERSHIP.



moneris.com/associations
1-877-789-5335

Moneris
BE PAYMENT READY

실업인 협회 단체보험
KMI Brokers Inc.

집/자동차: 기준보험료 대비 **15%~20%**할인
비즈니스: 담배도난 무제한 보상 가능

오중찬 : C) 416-602-7083
jc@kmibrokers.com

이며 이 비용과 설치비용은 회사측이 제작회사에 기 지불하였다.

3. 업주는 ITCO관계자 또는 협력사 직원의 설치를 위한 측량 및 설치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4. 설치 후, 업주는 보관함을 청결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고 보관함의 외형, 위치 또는 기능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또, 회사의 사전 서면허락이 없는 경우는 보관함을 이용한 광고, 복권제품 보관 또는 여하한 다른 형태의 광고 공간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사전 허락없이 다른 물체들에 의해 보관함이 가려지거나 다른 물체들을 보관함에 걸어둠으로써 보관함의 이미지를 저해분하게 해서는 안된다.

5. ITCO는 보관함 덮개를 이용한 광고 활동의 전반적인 독점권한을 가지며, 업주는 광고 설치와 관련해 회사측에 협조해야 한다. 회사는 자사 비용으로 광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덮개 광고를 추진할 수 있다. 업주는 회사가 계약체결한 광고 회사 및 회사의 광고 업무에 대해 협조한다. 덮개를 이용한 동 광고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ITCO 광고수익), ITCO는 회사 단독결정에 의해 어떠한 의무조항이 없이 수익의 일정몫을 업주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제공되는 수익몫은 업주와 ITCO간에 협의한다. 업주와 ITCO는 배당된 광고수익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담배 제품의 소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6. 업주는 제공받은 보관함(덮개와 뒷벽, 서랍, 캐비닛 을 포함한 모든)

의 전체 공간 중 ITCO 제품의 독자적 전시, 보관을 위해 최소한 ____% 제공에 동의한다. ITCO제품을 위해 할당된 공간에 제품을 배열하는 것은 회사측 플레노그램에 의해 정해진다. 업주는 이를 준수해 ITCO 제품을 배치하고 보관한다.

업주는 회사측이 정한 플레노그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플레노그램은 회사측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수정되고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업주는 변경된 플레노그램이 역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철저를 기한다.

“전시 가능한 공간(Available Space)”의 의미는 기존 담배 보관함 공간 그리고 ITCO가 금변에 제공하는 담배보관함을 합한 전체 공간이다. 여기서 금변에 제공하는 담배함 공간이란 업주가 타 담배회사에게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계약을 맺지 않은 신규 발생한 공간을 의미한다.

7. ITCO가 업주에게 제공하는 보관함과 관련하여 첨부 계약서 Schedule A가 있는 바 업주는 여기에 명시된 서비스(이하 “Services”라 함)를 회사측에 제공해야 한다. 아래 10항에서 명시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양측의 동 서비스 제공 계약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된다. 회사는 이 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있으며 업주에게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8. ITCO가 제공하는 보관함이 유관 법령들을 준수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회사측은 어떠한 대리 또는 보증 의무가 없으며 업주에게 관련된 법령 준수의 책임이 있다.

TouchCash Inc. ATM & POS

한인의, 한인에 의한, 한인을 위한

Best People
Best Service
Best Results

타회사의 ATM, POS(Debit)를 계약하시고 문제가 많으신 분
새로 ATM, POS(Debit)를 구입계획하고 계신 분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ouchCash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가
최대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100% Smart Chip (EMV) Ready

Internet & Phoneline 겸용

Showroom : 820 Denison St. Suite #3, Markham, ON L3R 3K5
Call Today 1-866-391-3950 / Fax 905-513-0919

9. 업주는 회사측이 금번에 제공하는 담배보관함의 설치/사용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금번 계약 체결을 금하는 여하한 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에는 광고 계약도 포함되는데 덮개 광고든 보관함 광고든 타 경쟁사에 할당된 공간이든 업주는 관련된 광고 계약 체결을 금하는 어떠한 계약의 주체도 될 수 없다.

10. 본 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해지되기 전까지는 5년간 유효하다. ITCO는 5년간 보관함의 전적인 소유권을 유지한다. 회사는 30일 사전 서면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업주는 90일 사전 서면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면 ITCO는 업소에서 보관함을 종전의 상태와 유사하거나 같은 상태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ITCO는 뒷벽 담배장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상에도 책임이 없다. 업주는 업소의 담배보관 공간과 관련해 연방 및 주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회사측은 업소 매각, 폐업 또는 ITCO규정 미 준수 시 즉각 동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본 계약은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11. 보관함의 안전성, 디자인, 품질 수준 등과 관련해 회사는 여하한 보증이나 대리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12. 회사측이 업주에게 사전 통고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양측 합의하에 서면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동 계약의 어떤 규정도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

13. 본 계약서의 규정은 온타리오 주 정부법령을 준수한다. 위의 규정과 조건에 동의하면 아래 서명란에 서명한다.

첨부: 업소주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 사항

■ 스케줄A 1(Schedule A 1) *전면 독점판매

일반 담배제품 공급 관련 서비스

1항, 2항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 (Applicable Yes / No)

1. **한시적 독점판매 (Temporary ITCO Exclusivity)**
 회사측이 정한 한시적 독점판매란 회사가 지정한 일정 기간 동안 ITCO 담배제품만 판매하는 것이다. 품목은 제품 특성이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업주는 이 지정 항목에 해당하는 타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회사가 지정한 품목을 고객에게 100%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재고 품질 불가) 독점 판매 기간은 회사가 결정하며 사전에 업주에게 통보해 준다. 독점판매 기간은 4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분기 당 1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연간 총 12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미) 독점판매 기간 운영 관련한 세부 내용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며 독점 판매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업주에게 매번 통지한다.

2. **우선지정품목 독점판매 (Preferred Assortment)**
 업주는 ITCO 담배제품의 다음 항목 _____ 만을 독점 판매해야 한다. 이들 품목은 제품 특성이나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제품 특성에 따른 유형의 예로는 Charcoal 혹은 XL을 들 수 있으며 카튼 판매나 2팩 스

페셜은 제품 형태의 예이다. 회사는 우선지정품목 독점판매 대상 품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업주에게 통고한다.

베이프 제품에 관련된 서비스

1. **독점판매** : ITCO의 경쟁사와 종전에 어떠한 계약을 맺었어도 업주는 업소 내에서 판매되는 베이프 제품으로는 ITCO 베이프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취급, 판매해야 한다. (가격표와 전시물의 독점 취급을 포함)
 다만 업주는 경쟁사의 베이프제품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타 회사 제품을 동시에 취급, 판매가 가능하다.

가격표지물과 일반 담배제품 최저가격 관련 서비스

1항, 2항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 (Applicable Yes / No)

1. **가격표 전시의 배타적 의무** : 해당 법령에 준하여 업주는 다음과 같은 담배제품이나 제품의 형태에 따른 최저 가격표를 ITCO제품에만 배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_____
 (최저가격 표지물의 예를 들면 “우리 가게에서 가장 저렴한 담배”, 제품 특성에 따라서는 “차콜 필터 제품 중 가장 저렴한 담배”, 제품 규격에 따라서는 “20개비 중 가장 저렴한 담배”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음.)

2. **우선지정 품목의 최저가** : 업주는 업소에서 가장 저렴한 담배물량의 최소 50%를 ITCO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멀티 팩 또는 카튼 단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개인 손해	교통위반 티켓	형법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	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횡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위 판매가를 갑 당으로 환산했을 경우의 가격대도 포함해서 그러하다.)
 업주는 판매되는 ITCO 제품 최저가 선정 및 타 회사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ITCO 제품 선정 관리 등에서 독자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스케줄A 2(Schedule A 2) *준(準) 독점판매**

(스케줄 A1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점의 강도가 완화된 상태)

일반 담배제품 공급 관련 서비스

1항, 2항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 (Applicable Yes / No)

1. 한시적 독점판매 (Temporary ITCO Exclusivity)

스케줄 A1과 내용 동일함

2. 우선지정품목 독점판매 (Preferred Assortment)

스케줄 A1과 내용 동일함

베이프 제품에 관련된 서비스

1. ITCO 베이프 제품의 독점권: ITCO의 경쟁사와 중전에 체결한 계약과 관련 법령 등을 고려 하여 업주는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a. 타 업체 베이프 제품과 더불어 ITCO 베이프 제품도 취급, 판매한다. 다만, 계약 기간 동안에 ITCO 경쟁사가 출시하는 어떠한 신규 베이프 제

품도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b. ITCO 제품의 전시 또는 홍보물만을 배타적으로 취급하고 사용해야 한다.

c. 베이프 제품과 관련된 가격표지물은 ITCO 제품만을 배타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가격표지물과 일반 담배제품 최저가격 관련 서비스

1항, 2항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 (Applicable Yes / No)

스케줄 A1과 내용 동일함

*이상이 계약서 전문내용이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회원들이 유념해야 한다. 전면 독점 판매인 스케줄A1은 현재 업소로부터의 저항이 세고 경쟁사가 임페리얼과 충돌을 야기하는 서신을 회원들에게 송부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자 업소 사정을 감안한 타협안 버전이 여러 종류 나돌고 있다. 완화된 내용 또한 본인이 분별있게 잘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스케줄 A1의 변형본으로는 베이프 제품 관련 서비스에서 임페리얼이 제공한 베이프 제품 전용 보관함 공간 전체의 75%는 임페리얼 제품이 차지해야 한다든가 업소 내 베이프 제품 소개 가격표는 임페리얼 가격만 배타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



POS, ATM, Debit and Credit Card Services Company



FULL INTEGRATION SYSTEM
일체형 연동 시스템

Tel 1.888.554.7355
www.1solutions.ca / email : info@1solutions.ca

P / O / S S / Y / S / T / E / M

- **데빗 단말기 연동**
Debit terminal device integration
- **한국에서 설계 제조 및 테스트 됨**
Designed, manufactured, and tested in Korea
- **OLG 온라인, 스크래치 티켓, Winning Ticket, 바코드 형식 시험**
OLG Online, Scratch Ticket, Winning Ticket Barcode System Implementation
- **클라우드 서버 사용**
Cloud Server to download and upload data
- **POS System을 이용해 매장의 모든 정보를 "Back Office" 소프트웨어에 저장**
POS System to store all the information of the store in "Back Office" software
-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클라우드 서버의 보안성 보장과 비교할 수 없는 서버 속도**
We use world's most respected cloud server provider to ensure data security and unparalleled server speed
- **LCBO Software 지원**
LCBO Software Support
-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 트레이닝, 설치를 총 \$2500**
Fully equipment, including software, training, and installation for only \$2500
- **모든 영업 운영과 경영을 포스로 가능**
All sales operations and store management are made possible through our POS system

The best rates for the best customers

Business Type	Discount Rate	Transaction Fee	Brand Fee	Non-Qual
Convenience Store	1.40%	No Charge	0.1%	0.3%
Other Type of Business	1.40%	No Charge	0.1%	0.3%

Business Type	Chip & Swipe	Tap & Flash
Convenience Store	3.65 cent	5.65 cent
Other Type of Business	3.65 cent	7.15 cent

- NO STATEMENT FEE (무료 우편 또는 EMAIL 발송)
- NO HIDDEN CHARGES
- NO CONTRACT
- SIGNING BONUS \$300
- DEBIT MACHINE 문제 발생시 - TECH SUPPORT 24/7
- YOUR SATISFACTION IS OUR GOAL

Office 905.560.4511 / Fax 1.888.554.0409

조합 주주총회에 즈음하여



온주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신재균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문턱에서 대하는 주변 자연의 쓸쓸년스러운 풍광만큼이나 우리네 비즈니스도 밝아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의 큰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야 할 협동조합도 최근 수개월간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니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다 파먹은 김장독같은 물결의 조합을 처음부터 재건해야 한다는 분발심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4일은 협동조합 주주총회의 날입니다. 조합의 지난 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차기 회계연도 예산을 검토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9월에 걸쳐 진행됐던 조합 특별감사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실험의 조합 건물 매입, 조합측에서 본다면 현재의 조합 소유 웨스트몰 건물을 협회에 매각하는 안건도 다루게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다수의 안건들을 다루는 주총이기에 그 어느 해보다 무게감있는 주총을 앞둔 시점에서 조합 운영이사의 한 사람이 자 협회 회장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 여러분에게 개인적 소회와 아울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진지하게 드리고자 본 지면을 빌립니다.

조합은 도덕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올해가 창립 35주년입니다. 협회 창립 45주년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35년 조합 역사의 단절을 외치고 싶습니다. 창립의 취지와 유구한 전통을 끊지는 것이 아니라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자는 의미에서 구태와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전 전임 운영이사장과 전무가 운영하던 불과 4년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결과는 조합을 근본으로부터 새로이 재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행정 업무는 나태와 무관심 그 자체였으며 회계의 불투명과 은폐된 비리들은 산적해 있었고 재고관리는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차고 넘쳤으며 조합원의 이익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주먹구구식의 영업 행태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조합은 최소한 지난 10년 간 영업 흑자를 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분식 회계로 눈가림이었으며 개탄스럽게도 매년 되풀이되는 결산 보고는 그냥 종이뭉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바일 영업 시대가 끝나면서 이곳 웨스트몰 매장 1원화로 조합은 정리가 됐습니다. 몸집이 가벼워진 만큼 신축성있는 영업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최근 수개월간의 영업실적은 그런대로 호전되고 있고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활기차 보입니다. 조금은 다행입니다만 이번 특감에서 우리 조합의 추한 과거사가 어떤 모습인지 용기를 가지고 직시하며 폐허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통절한 반성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조합원 여러분이 오는 주주 총회에 많이 참석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합은 실용적 마인드로 새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 직원의 배전의 각오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인적, 물적 구조 조정도 그 한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책들이 빛을 제대로 보려면 안정적 영업 환경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입니다. 그 물적 토대가 바로 조합의 현 웨스트몰 건물을 매각해 여유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매각하려면 조합의 산파였던 협회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최근 조합 운영이사장님이 조합원들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를 인용합니다. 『(조합)빚이 175만불입니다. 모기지도 100백만 불 가량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1년에 25만불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조합이 돈을 못버는 것이 아니고 벌어서 영똥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을 이자로 안내면, 은행빚없이 장사할 수 있다면 물건값을 훨씬 싸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장사가 잘되고 매장은 더 바빠지니 직원 월급도 올려주고...』

가슴에 절실히 와닿는 말씀입니다. 연 25만 달러 은행이자, 4년이면 1백만 달러가 금융비용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건물만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현금 유동성과 경영 안정성은 조합 재건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협회가 사겠습니다. 조합은 매각 대금으로 빚 싹 갚고 여유돈 가지고 장사에만 신경쓰면 됩니다. 항간에 협회가 조합건물을 사서 조합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는 터무니없는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건물했다고 조합이 장악된다는 이치도 납득되지 않지만 협회는 협회의 미래만 생각하면 일찌감치 신규건물을 샀을 터이지만 조합 생각해서 조합 건물을 사주는 것이라고 누차 말했습니다. 건물 매각의 당위성은 바로 조합의 수장인 운영이사장님이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실용적 사고하에 조합원의 저렴한 쇼핑 여건이 최우선임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조합 건물을 실험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을 충분히 공감하리라 확신합니다.

조합은 우리 모두의 조합이 돼야 합니다.

불행한 과거를 다시 떠올리기 불편합니다만 한때 협회와 조합의 격렬한 갈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협동조합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보통주 100불 제도가 등장한 연유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갖 엉터리같은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본인 돈 1달러도 안냈는데 보통주가 쥐어지게 된 조합원이 한둘이 아닙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알력과 굴절된 역사가 배어 있는 정관이 지금의 조합 정관입니다. 이리다보니 그간의 조합은 특정 지역 특정 세력의 장악하에 휘둘러왔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조합원 신분에서 부지불식간에 배제된 상황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협동조합 이용객에서 비조합원 - 주로 비 한인들입니다만 - 의 구성비가 절반이고 이들의 매출 구성비는 한인 쇼핑액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법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온타리오 협동조합법 144조 1항) 이런 우려를 떨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조합원 수를 배가시켜야 하는 것은 급선무입니다.

이제 조합을 우리 모두의 조합으로 되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관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현행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쇼핑 회수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규정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정상화를 통해 우리 모두의 조합 만들기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 조합 주총을 앞두고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저의 입장을 미리 밝혀드렸습니다. 혹자는 그렇습니다. “비리는 무슨, 과거부터 내려온 관례에 따랐을 뿐...” 숨어들고 핑계대기 딱 좋은 전가의 보도와도 같은 “전례”라는 말이 조합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소명을 다 할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말로 저를 충고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재출발할 수 있다면 그 정은 수백 수천번이라도 맞을 각오가 되어 있으며 얼마든지 모난 돌이 되렵니다.

독일의 유명 소설가가 그의 작품에서 표현했던 다음 구절이 새삼 떠오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조합의 현실은 미봉책으로 개선될 수준이 아닙니다. 스스로 파괴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 태어나는 협동조합, 불사조 피닉스와도 같은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열렬히 동참합시다. 12월 4일 조합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원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t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2018년 KBA 협동조합 주주총회 공고

본 KBA 협동조합은 정관 제 4장 제 13조에 의거 제 36차 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 2018년 12월 4일(화) 오후 1시
 - **장소**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 (416)789-7544
 - **안건** : 1) 2018년도 업무보고
2) 2018년 결산보고 및 승인
3) 정관 개정
4) 2018년도 감사보고
5) 2019년도 예산안 승인
6) 운영이사, 감사 선출
7) 조합 건물 매매건
8) 기타
- 특감 보고
- 기타 : 1) 주주 조합원님께서는 회의 참석 시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ID카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주의 자격은 온타리오 Co-Op. Act 82조와 정관 9조 3항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3) 주주총회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연 3회 상품을 구매하고 보통주 1주 이상 보유한 조합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기준 : 당회계년도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4) 운영이사, 감사 후보 신청자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을 조합 사무실에서 수령한 후, 본인이 직접 2018년 11월 26일(월) 오후 5시까지 협동조합 사무실로 후보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 36차 연도 회계결산에 관한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A 협동조합 운영이사회 이사장 **신영하**

협회 문의
(416)789-7891

SAINT JIMMY'S Coffee Services
www.saintjimmyscoffee.ca
The fastest growing coffee service in North America

순수 캐나다산 육류제품

GREAT CANADIAN MEAT

11월~12월 스페셜

Regular \$4.99/per pack
Promotion \$2.80/per pack

Promotion Retail **2 for \$7⁹⁹**

1390 Hopkins St., Whitby (905)666-9395

모두들 더 싸다고 말하지만
“진짜 착한가격은 78Trading”

Water Pipes

Glass Pipes

Vaporizers

Grinders

Rolling Papers

Scales

이외에도 다양한 스모킹 제품 및 잡화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Highway 404, McNicoll Ave., Victoria Park, 사문거리

Business Hours

Monday-Friday
9:00AM-5:00PM

Saturday
9:00AM-1:00PM

Sunday
Appointment

78 Trading 437-777-7878

528 McNicoll Ave. North York M2H 2E1
www.78trading.co | contact@78trading.co

AGCO, 협회 위해 직접 설명회 개최

온라인 서비스 iAGCO 활성화 기대



▲ 노스욕에 소재하는 AGCO본사(90 Sheppard Ave E #200, North York)에서 AGCO직원들이 본부협회 사업팀 직원들에게 iAGCO 이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온주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간부 및 직원들이 본부협회 사업팀 직원을 본사로 초청해 온라인 서비스 iAGCO 이용법에 대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협회 직원이 먼저 이용법을 확실하게 알아야 소속 회원들의 이용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회만

을 위한 별도의 설명회까지 개최한 것이다.

AGCO측은 이미 협회가 실험뉴스(761호 10월 10일자)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에 대해 발빠르게 소개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해당 실험뉴스에서는 “AGCO 각종 신청, 온라인으로 편하게”라는 헤드라인과 “복권영업 갱신 1년 폐지, 4년으로 일원화”라는 부제하에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하는 요령을 자세히 알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뉴스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거나 실험 웹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는 회원들은 이와 관련한 정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본 지면에서는 이날 AGCO측의 설명내용과 협회측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한 내용등을 중심으로 하고 최근 AGCO가 복권소매업소에 보내온 한글판 공지사항이 담긴 뉴스레터의 중요한 내용을 보태서 정보를 재차 소개하고 부분적으로는 업데이트를 하니 회원들의 정독을 요망한다.

.....
올해 늦가을부터 AGCO와의 모든 업무가 온라인 상으로만 시행된다. AGCO 웹사이트 www.agco.ca에 들어가 iAGCO온라인 포털을 사용하면 복권 관련 등록 및 갱신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 업무를 매우 쉽

FEEL THE NICOTINE **RUSH**

STIG

DISPOSABLE
POD DEVICE

FULLY CHARGED
OUT OF THE BOX

1.2 ML
SALTYNIC LIQUID
PER STIG

6.0%
NICOTINE
BY VOLUME

20
CIGARETTES
APPROXIMATELY

Fresh Cool Mint

Juicy Sweet Mango

Rich Creamy Cigar

Iced Watermelon

도매문의 : 416.419.3751
*판매 세일즈하실 분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간편한 **최첨단 일회용 전자담배**

Coming soon!

iAGCO online services for Ontario's Lottery and Gaming Registrants!

Starting in late fall 2018, Ontario's lottery and gaming registrants will be able to conduct all of their transactions online with the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AGCO).

The online portal, iAGCO will provide a quicker, easier, more convenient way to apply for, change and renew your lottery and gaming-related registrations anytime from anywhere.



To receive email updates about the iAGCO launch, send us an email to updates@agco.ca, subject line: iAGCO Phase 3 Updates.

For more information, visit us online www.agco.ca or call 416-326-8700 or toll free 1-800-522-2876

고 신속하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미 2018년 9월 18일을 기해 모든 기존 업소들에게 우편으로 이 사실을 고지했으며 갱신 통지와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유념할 것은 이제 앞으로 매년 하던 1년 단위 갱신 신청은 폐지되고 매 4년마다 그것도 간소화된 양식으로 온라인 상으로만 갱신된다는 점이다. 행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 운영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되며 오직 온라인으로만 갱신 신청

해야 한다. 각 업소별 효력 만기 기일은 다양하다. 어떤 업주는 1년 만기일 또 어떤 업주는 4년 만기일에 이르기까지 몇가지 기간으로 통보를 받을 것이다. 어떤 업소가 4년 만기가 앞으로 3년이 남았다고 해서 3년 후에 갱신하라고 통지문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4년짜리 유효기간 통지문이 올 수도 있고 3년이 안되는 통지문이 올 수도 있다. 이는 기간을 몇가지로 카테고리화해서 무작위로 구분지어 업주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실제 만기일은 무관하고 AGCO에서 보내주는 잔여 유효기간만 신경쓰면 된다.

그런데 이 또한 신경쓸 일이 아니다. AGCO가 만기 60일 전에 이메일로 갱신을 온라인 iAGCO 에서 하라고 친절하게 통보해준다. 이메일만 규칙적으로 챙겨보면 기억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기를 놓쳐 갱신을 못하고 따라서 복권 영업을 몇주씩 못하는 불상사는 벌어질 수가 없다.

한편, 본인의 등록신청 처리 현황 즉,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한 정보를 저장해 향후 신청 및 갱신 시에 재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도 누릴 수 있다.

iAGCO 등록 유의사항

매년 갱신을 폐지하고 4년마다 간소화된 양식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편리함을 얻는 만큼 온라인 이용법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 이번에 회원들이 받은 유효기간 만기 통지서에는 iAGCO의 등록에 필요한 "Access Code"가 기재되어 있다. 이 번호가 있어야 등록 인증이 가능하다.

● 신규 등록자의 경우는 신청하면 이메일로 이 코드를 보내 주고 코드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정식으로 어카운트가 생성된다.

● 기존 업소는 통지를 받고 등록을 하고 iAGCO에 계정을 만들면 만기일 60일 전에 email로 통보를 해 준다. 따라서,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메일의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메일 통보를 무시하고 만기일이 지나 버리면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소멸되어 다시 신규 신청서 (New Application)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2~4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재발급되기까지 OLG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으니 큰 손실을 안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AGCO측은 향후 웹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신청해 회원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실협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입수되는대로 협회 웹사이트, 협회 단체카톡방, 실협뉴스에 게재할 것이다.

AGCO가 강조하는 온라인 이용의 또다른 장점은 필요한 정보를 수정,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갱신일 전이라도 이런 사실들을 업로드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속도 위반을 했을 경우 티켓과 법원출두 날짜 등을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 범법 행위를 인지한 후 5~10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한다.

이하 AGCO가 복권 이외의 연관성있는 위법행위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들을 소개한다.

- 캐나다 형법 위반
-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 위반 (예, 음주 운전, 신호 대기를 무시하고 지나감)
- 온주 금연법(SFOA) 위반 (예,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 담배 세법(Tobacco Tax Act) 위반 (예, 불법담배 판매)
- 고용기준법 (Employment Standard Act) 위반

OLG규정을 위반해 OLG로부터 경고서신, 영업정지, 벌금 등에 처해진 아래와 같은 사실들도 AGCO에 즉각 신고해야 할 대상이다.

- 즉석복권 활성화 안함(Pack Penalties)
- 잔고 부족(NSF)
- 본인 업소에서 복권 구매 및 당첨유무 확인
- 고객 현장 부재 중 복권 출력
- 25세 미만 신분증 제시 미실시

위의 법령과 OLG규정 위반의 사례는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사례는 훨씬 많을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한다. 이런 위반 사실은 발생하자마자 그리고 유죄 판결 여부를 떠나서 곧바로 AGCO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차후 갱신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

피터보로 지구협회 연말 파티

올 한해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말 파티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좋은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시 : 2018년 12월 12일 (월) 오후 5시

● 장소 : Keystone Golf Club

2402 Clifford Line, Peterborough ON

TEL : 705-876-8061

● 연락처 : 피터보로지구협 회장 홍성훈

TEL (705) 768 - 9500



*참고사항

푸짐한 경품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사오며 순조로운 파티를 위해 참석자 명단을 12월 3일(월)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터보로 지구협회장 홍성훈

‘평범한 담뱃갑’ 정책도입, 업계와 같은 반대 목소리

NCACT, 온주 불법담배 실태 발표



▲ 온주 불법담배의 대부분이 과거처럼 비닐봉지에 200개비를 담은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니라 사진처럼 브랜드제품의 매우 그럴싸한 외관을 하고 스모크 섹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불법담배퇴치전국연대(National Coalition Against Contraband Tobacco; 이하 NCACT)가 최근 온타리오의 불법담배 실상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골지는 온주 내에서 소비되는 담배의 32%가 불법담배이며 어떤 지역에서는 60% 가까이 불법담배였다는 것이다. 온주편의점 협회가 매년 조사해 실태의 심각성을 밝혀오고 있는데 민간 NGO단체인 NCACT가 이에 가세해 불법담배 실상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표해 의미가 매우 크다.

조사에 의하면 불법담배 중 80%는 정품담배처럼 제대로 갑에 담겨있고 포장도 온전하다는 것이다. 이런 모양의 불법담배는 그러나 법에 명시된 포장 표면의 건강 경고그래픽이나 문구같은 것은 없으며 때로는 금지된

맛이나 향, 예를 들어 맨솔같은 향이 가미된 제품들도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방 및 주정부 담뱃세를 내지 않는다.

전직 토론토 경찰청의 베테랑 경찰이자 NCACT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개리 그랜트씨는 “온주 불법담배 문제는 국내에서 가장 심각하며 불법담배 창궐은 이미 여러해동안 변함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밀수 루트 또한 점점 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가 보던 또 한마디는 편의점 업계에서 최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온 것과 같은 내용이라 반갑기 그지 없다. “담뱃갑 포장 통일화(plain packaging)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사태를 그저 더 악화시킬 뿐이다.”

NCACT에서 조사한 결과도 OCSA가 밝힌 조사 자료와 유사한 실태를 입증했다. 온주 북부지역이 불법 담배 소비율이 가장 높는데 일부에서는 59%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남부 온타리오는 36%로 상대적으로 덜했고 그 다음으로 낮은 소비율을 보인 곳은 동부 온타리오와 수도 오타와 지역이 33%였다. 가장 낮은 곳은 GTA지역인데 온주 전체 소비율을 낮추는데 기여도가 크다. 이 조사는 성인 흡연자 1,500명을 상대로 벌였으며 지난 8월 18일 조사가 끝나고 이후 분석과 자료작 성끝에 최근에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랜트 대변인은 “불법담배의 양적 팽창도 문제이지만 유통 루트가 더 세련되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과거에는 비닐백에 200개비씩 담아 팔렸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담뱃갑에 디자인도 그럴듯하게 20개비씩 넣은 정품담배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많은 담배들이 수상쩍은 담뱃가게 (smoke shack)에서 거래되고 있고 온주 흡연자의 2/3는 이런 곳에서 구입하는 담배가 불법담배인지도 모르고 구입하고 있다.

스모크 섹에서 판매하는 담배들은 전시까지 버젓이 해놓고 판다. 이 또한 금지인데 아랑곳하지 않는다. 불법담배 소비율은 이제 어느정도 불변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는 불법 담배를 통한 벌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랜트씨의 증언을 좀더 들어본다. “캐나다에서 거래 및 소비되는 불법담배의 80%가 온타리오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이 갑에 들어있으며 담배
(20면에 계속)



캐나다 HNS담배 전쟁 예고

필립모리스 차세대 iQOS 출시



▲ 필립모리스 차세대 아이코스. 왼쪽이 아이코스3, 오른쪽이 아이코스3 멀티.

스위스 로잔에 세계 영업 본부를 두고 있는 필립모리스 인터네셔널(PMI)이 차세대 아이코스(iQOS)를 출시했다. 스위스 켈런형 전자담배 혹은 HNB(heat-not-burn)담배로 지난 2015년 9월에 유럽과 일본에 처음으로 선보이며 등장한 아이코스가 3년이 지난 10월 22일 'iQOS 3', 'iQOS 3 MULTI' 두 종의 차세대 아이코스 제품을 가지고 일본 도쿄시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 현재 일본은 전세계 켈런형 전자담배 소비의 최대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회사측은 이들 두 종의 신제품은 소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조언을 구했고 이를 반영한 결과 디자인과 소비자 만족도에서 큰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강력한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는 모든 것들, 예를 초기부터 강점으로 평가받아온 고유한 맛, 감각적 요소들과 독특하게 전달되는 분위기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측은 아이코스 새 버전 출시를 건강을 염려하는 일반 담배 흡연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공중 보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유익함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수년간 담배 없는 미래를 설파해왔다. 작년 1월에는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면서 회사의 비전과 전망을 밝혔고 신제품들이 성인 흡연자들과 사회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그로부터 일년 후인 올해 초 영국 주요 신문에 통 1면 광고를 게재해 회

사의 '새해 결심(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타이틀하에 “영국에서 일반 담배 판매 중단”이라는 헤드카피의 광고 문안으로 세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 CEO인 앙드레 칼란초폴로스씨는 “일반 흡연자를 위한 더 나은 대체품을 개발해 내는 것이 우리의 꿈이며 이런 면에서 아이코스가 그 꿈을 실현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의 신제품 아이코스들은 매우 중요한 개선을 이뤘으며 일반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워야 하는 성인 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없는 제품으로 갈아타려는 의지에 부합하는 또 다른 발전된 제품이라는 말도 보탤다.

“아이코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자신의 삶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줬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에 감사한다.” 출시 발표회에서 앙드레 회장이 한 말이다.



▲ 도쿄에서 차세대 아이코스 제품인 아이코스3을 손에 쥐고 신제품 발표를 하고 있는 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 CEO 앙드레 회장.

참고로 미국에서의 사정은 복잡하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에 회사는 식품의약청(FDA)에 허가 신청서, 일명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 Application이라는 긴 이름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17년 5월부터 시작한 검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미국 필립모리스는 모회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알트리아 그룹(Altria Group)으로 만약 식품의약청의 허가가 떨어지면 미국 판매는 PMI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알트리아가 맡게 된다.

한편, 캐나다에서 아이코스는 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의 캐나다 법인 RBH가 취급하고 있으며 이미 연초부터 밴쿠버와 토론토 다운타운에 직영 매장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편의점 채널을 중심으로 소매 영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쟁사이자 일반 담배의 캐나다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임페리얼 토바코(ITCO)는 최근 차세대 전자 담배 즉, VYPE 판매를 본격화하기 위해 협회 회원을 포함한 편의점들과 개별 계약을 맺고 전자담배 보관함 - 일명 Backwall Storage Space - 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나섰는데 독점취급 조항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하튼 캐나다 시장이 켈런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차세대 전자담배 전쟁이 가열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과연 잘 운영해서 어려운 편의점 영업에 효자노릇을 할 지 아니면 담배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려야 하는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킹스턴 지구협회 송년의 밤

올 한해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 말씀 올리며 2018년 송년의 밤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셔서 행사를 빛내주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 2018년 12월 3일 (월) 오후 5시 30분
- **장소** : Knight of Columbus Hall in Trenton
57 Stella Crescent, Trenton, ON K8V 1W6
TEL (613) 392 - 2310
- **연락처** : TEL (613) 403 - 0142
email : jkone1026@hotmail.com

*참고사항 - 참석 여부를 11월 27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이나 후원금 지원을 적극 환영합니다.

*식사 후 푸짐한 경품 추첨이 있으니 많은 참석 당부드립니다.

킹스턴지구협회장 이강정

실험회원을 위한 특별 판촉

11월 18일 ~ 12월 22일까지

Neilson Dairy를 취급하는 Saputo에서
신상품 출시!!

아래 광고에서 보드시피, 당분을 줄이고 일반 우유보다 75%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울트라필터 생산방식의 고급 우유이자 영양제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소비자 추세가 보다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쿨러에 저장할 필요없이 실온에서도 3개월간의 유효기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고객의 눈길이 잘 닿는 곳에 전시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1리터 제품으로 Homo우유부터 초콜렛 우유까지 생산하고 있는 JOYYA 우유의 공급원가는 \$3.85이고 소매가는 \$4.99입니다.

특히 실험회원만을 위한 판촉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1달간 진행하며 판촉 기간 중에는 \$3.55로 공급되고 권장소매가는 \$3.99에서 \$4.39까지 판매하기를 권합니다. ■



신상품! 고단백 울트라필터 우유

- ✓ 울트라필터 우유 : 첨가물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 영양소가 한잔에 가득
 - 일반 우유보다 75% 더 많은 단백질
 - 일반 우유보다 25% 더 적은 양의 유당(당분)
- ✓ 신선하고 깔끔한 맛과 향
- ✓ 실온에서 120일간 신선도 유지
- ✓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용기
- ✓ 밀봉뚜껑으로 신선도 최대 유지
- ✓ 시장 선도 날선 제품
- ✓ 순수 캐나다 자원으로 생산, 판매되는 신선한 우유



저설탕, 고단백
우유로 보다
활력있고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英 BAT 차세대제품 총책의 쓴소리

"편의점, 정신 안차리면
베이퍼시장 잃어"

한 거대 유통 소매채널은 미용/건강 코너 전시대 공간의 거의 대부분을 베이퍼 제품에 할애할 계획을 세웠는데 성인 소비자들의 눈에 더 잘 띄고 접근성이 좋아지게 할 목적이었다.

영국 전자담배 시장은 대략 10억 파운드(캐나다화 약 17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당과류 시장 규모와 맞먹고 에너지 드링크 시장 규모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2025년에 이르면 지금의 3배 가까운 27억 파운드의 시장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BAT의 전망이다.

하디씨는 이렇게 분석한다. "업소내 제품 전시 기법이 베이퍼 제품 매출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이 방면에 무관심하거나 게으른 소매업주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냥 카운터 위에 덩그러니 올려놓는 방식은 정말 나태한 것이다. 전자 담배 제품군에 가장 우량한 공간을 배정해야 하며 그것도 더 늦기 전에 당장 실천해야 한다. 편의점 업체는 이 전시 기법 경쟁에서 부디 낙오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디씨가 편의점을 의식하며 던진 쓴소리다. 이 말은 뒤집어보면 여러 소매채널 중에서 편의점 채널이 그만큼 진열에 신경이 무디다는 소리고 특히나 전자담배 제품군에 대한 전시 수준이 구태의연하고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의 충고를 더 들어보자. "편의점 업체가 베이퍼 제품군에 대해 현재 뭔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면 카폰웨어하우스(Carphone Warehouse)가 상권 요소요소에서 현재의 편의점이 누리고 있는 전자담배 판매 경쟁력을 알아갈 것이고 이는 편의점의 크나큰 수익처를 상실하는 결과인 것이다."



▲ 영국 런던의 한 편의점. 왼쪽은 잘 전시된 전자담배 벽면 코너이며 바로 오른쪽으로 일반담배 가리게 보관함 벽면이 보인다.

"기획의 문이 닫히고 경쟁력 우위를 도둑질 전문 업소들에게 빼앗기기 전에 영국 편의점 업체가 행동에 나서 현재의 전자담배 시장 우위를 사수해야 할 것이다." 세계 1위의 다국적 담배회사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리티쉬어메리칸토타코(BAT; British American Tobacco) 차세대 제품 담당 총책 나이질 하디씨가 최근 내놓은 경고성 발언이다.

이같은 우려를 표출하기 수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BAT는 소매 유통 채널을 통해 베이퍼 제품을 제대로 잘 전시해서 자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베이퍼 시장 선두 자리를 이어가리라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Carphone Warehouse는 어떤 회사?



영국 최대의 휴대폰 소매판매 유통채널의 하나이며 유럽 전역에 약 2,400여 개의 직영 매장을 거느리고 있다. 1989년에 창립한 신생 기업으로 본사는 런던에 있으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이 11,500여 명이다. 런던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있고 대표업체들의 지수인 250 지수에도 포함된 기업이다.

하디씨가 이 회사를 들먹인 것은 행여라도 이런 업체가 자신의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전자담배 장사에 뛰어들면 대단한 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코자 함이다. 휴대폰 진열이 손님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유명한데 전자담배도 휴대폰처럼 멋진 전시 기법으로 판촉을 하게 되면 편의점의 단일한 전시 수준으로 볼 때 편의점 업체의 전자담배 손님을 크게 앗아갈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20면에 계속)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캐나다한인여성회
2018년 11월 프로그램

<p>활기찬 노후 준비 시리즈</p> <p>■ 일시: 11월 6, 13일 (화)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p> <p>■ 내용: 1.유연과 상속 2.자필봉사, 엘스케어, 모지와 장례사전 준비</p> <p>*정원 30명 (사전등록 필수)</p>	<p>캐나다 이민 안내</p> <p>■ 일시: 11월 6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p> <p>■ 내용: 1.최근 이민 동향 2.캐나다 이민의 종류 3.가족 초청 이민 4.익스프레스 엔트리 5.주정부 이민 6.질문과 답변</p> <p>*사전등록 필수</p>	<p>세이프 클럽</p> <p>■ 일시: 11월 7, 14, 21, 28일 (수) 오전10시 - 오전11시30분</p> <p>■ 장소: 갤러리아 스텝점 (7040 Yonge St. Thornhill)</p> <p>■ 담당: 가정상담원 박우연</p> <p>■ 내용: 정착 영어와 캐네디언 문화 배우기</p> <p>*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 및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남녀 *영어시험 응급 또는 응급이상 *사전등록 필수</p>	<p>캐나다 시민권 시험준비반</p> <p>■ 일시: 11월 8, 15일 (목) 오전10시 - 오후2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최성혜</p> <p>■ 내용: 1.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2.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3.캐나다 정보, 사법 시스템 4.캐나다 상징, 경제, 지리 5.문제풀이</p> <p>*등록비\$20 (사전등록 필수)</p>	<p>무료 헤어커트 서비스</p> <p>■ 일시: 11월 12일 (월) 오전9시30분- 오후12시30분</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주명숙</p> <p>■ 내용: 1.시니어를 위한 무료 헤어커트 서비스 (70+) 2.전문 헤어디자이너가 서비스 제공</p> <p>*신청은 7명 (사전등록 필수) *신문을 지참 *상표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빛동행' 프로젝트와 함께 합니다</p>
<p>부모 초청 안내</p> <p>■ 일시: 11월 20일 (화) 오전10시 - 오후12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p> <p>■ 내용: 1.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 2.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절차 3.신청서와 구비서류 4.질문과 답변</p> <p>*사전등록 필수</p>	<p>캐나다 국제청과 함께하는 세금보고 자원봉사 안내</p> <p>■ 일시: 11월 20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p> <p>■ 내용: 1.CVITP 란? 2.CVITP 자원봉사자 역할 3.CVITP 자원봉사자 요건 4.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5.E-file 신청안내</p> <p>*사전등록 필수</p>	<p>무료 이동 진료</p> <p>■ 일시: 11월 20일 (화) 오전10시 - 오후3시</p> <p>■ 장소: KCWA 다운타운</p> <p>■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p> <p>■ 내용: 1.자궁경부암 검사 2.질염 검사</p> <p>*정원 15명(사전등록 필수) *OHIP 카드 없이 진료가능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무료 서비스</p>	<p>성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p> <p>■ 일시: 11월 23, 30일, 12월 7, 14, 21일 (금) 오전10시 - 오후12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오선성희</p> <p>■ 내용: 1. 나는 행복한 엄마인가? 여성 Talk 2.성격유형으로 풀아가는 자녀와의 소통의 기술 3.불안하고 화나는 감정 돌보기 4.스마트폰과 게임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 5.성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p> <p>*정원 20명 (사전등록 필수)</p>	<p>2018 커리어 네트워킹 캐나다 공무원 되기</p> <p>■ 일시: 12월 8일 (토) 오전10시 30분- 오후2시</p> <p>■ 장소: 노스욕 시빅센터 5100 Yonge St. North York</p> <p>■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p> <p>■ 내용: 1.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한인공무원들 한자리에서 만나는 기회 2.공무원 분야에 대한 소개와 취업 기회 설명 3.초청 공무원과 참석인들의 소모임 4.네트워킹을 위한 노하우 5.질문과 답변</p> <p>*간단한 점심식사 제공 (사전등록 필수)</p>
<p>등록 및 문의: 416-340-1234 www.kcwa.net KCWA 다운타운: 27 Madison Ave. Toronto KCWA 노스욕: 540 Finch Ave. W. 2nd Fl. Toronto</p>		<p>토론토 총영사관 정착 서비스 일시: 11월 12일 (월) 오후1시30분 - 오후4시30분 장소: 토론토 총영사관</p>		<p>커뮤니티 자원봉사 일시: 11월 10일, 24일 (토) 오전10시 - 오후2시 장소: Good Shepherd Ministries</p>

Canada Fund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Financé par: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주토론토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DUKE'S
Freshly Crafted Smoked Meats

천연 통째 재료 훈제육
소량의 설탕 사용

<p>얼려지 않은 신선한 돼지고기</p>	<p>천연의 통째 재료</p>	<p>특별한 나무로 실제 훈제</p>	<p>소량 분배 생산 표시</p> <p>193</p>
------------------------	------------------	----------------------	-------------------------------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BIGS

단백질 가득! 맛과 향이 풍부!
시드(SEED) 스낵!

<p>직화구이</p>	<p>VS.</p> <p>최고급 점포 씨앗</p>	<p>풍부한 맛</p>
-------------	-----------------------------	--------------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추한 섬과 추한 대법원장



▲ 별칭으로 군함도(軍艦島)라 불리는 우리 아버지들 원혼(冤魂)서린 하시마 섬. 생긴 모양이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의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찍어 내던 군함과 비슷하다 해서 이런 닉네임을 얻게 됐다.

2012년 미국 뉴스전문 매체 CNN의 여행 섹션에 매우 흥미로운 발표가 하나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으스스한 장소 일곱 곳』 (7 of the freakiest places on th planet). 1위는 구 소련에서 1986년에 발생한 역사상 최대의 원전 사고로 유명한 체르노빌의 놀이공원이 올라 있다. 원전 사고가 난 후에 오랜 세월 방치되다보니 그럴 법도 하겠다 싶다.

한편, 일본은 두군데나 있는데 자살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한 후지산 자락의 '아오끼가하라 숲 (Aokigahara Forest)'이 그 첫번째다.

한 때 매년 이 숲속에서 자살자 시신이 수십구 썩 나오기 때문에 '자살 명소'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까지 붙을 정도였다. 그리고 또 한군데가 원폭 피해 도시로 유명한 나가사키(長崎)에서 바다 18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인 일명 군함도(軍艦島; Battleship Island)이다. 이번 호 교양상식에서는 이 섬에 얽힌 우울하기 짝이 없는 불편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2017년에 같은 이름의 '군함도'라는 영화로도 나왔으며 지나친 애국심 마케팅을 내세운 나머지 역사 고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일본 발음으로 '군간지마'라고 불리는 섬의 정식 행정 명칭은 하시마(端島; Hashima Island). 대표적인 관광촌으로 50년대까지도 호황을 누리다가 1974년 폐광돼 수십년간 버려진 무인도였다. 그런데 지난 2009년에 나가사키 시가 갑자기 관광지로 선언했고 약간의 정비를 하고는 유람선이 다닌다. 딱히 볼거리도 없는 폐허더미를 돌아보는 관광객에게 가이드는 과거에 탄광으로 유명했으며 일본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대표적 산업 역사유적지라며 자부심넘치는 해설을 쏟아낸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유령의 섬 군함도가 일약 관광지로 거듭난 것일까? 나가사키 시가 이런 설레발을 치던 같은 해에 일본 정부는 이 군함도와 나가사키 조선소를 포함해 20여 곳 이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명분은 메이지 유신으로 서구 문물

을 잘 받아들여 산업 혁명을 일으킨 결과 오늘날의 경제 강대국 일본의 면모를 세운 초석들이 바로 이들 산업기지들이었다는 주장이다.

얼핏 일본 지내들 일이겠거니 무심할 수도 있으나 일본이 이런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징용의 역사때문이다. 이 글의 배경인 군함도와 나가사키 조선소는 모두 미쓰비시 소유였다. 미쓰비시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전함 80여 척을 모두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제작했다. 또, 군함도에서 파울린 석탄은 제국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 물자 원료로 아낌없이 소비됐다. 그리고 그 채탄의 고된 지옥과도 같은 현장인 군함도에 동원된 우리들의 아버지들 800여명 한이서린 곳이다.

1938년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는 요상한 취업알선 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당시 일본 본토의 미쓰비시, 미쓰이 등 유명 전범 기업들이 조선 총독부에 인력 요청을 한다. 그러면 총독부에서는 지역 단위로 인원을 할당해 차출하는 강제동원이 이뤄진다. 이때 동원하는 일선 실무자들 또한 같은 조선인이다. 불편한 악역은 교활하게도 같은 동족에게 시키는 것은 일본만이 아닌 모든 제국주의가 써먹던 고전적 수법이다.

“임금 두둑히 주고 대우 잘해주니 겁먹지 말고 일본으로 가라” “한 2년만 고생하면 큰 돈 모아 온다. 여기 조선은 가뭄에다 밥 세끼 먹기도 힘든데 입도 덜고 돈도 모으고... 어찌고 저찌고...” 온갖 감언이설로 꼬여 15~20세 젊은이들을 반 강제로 끌고갔으며 죽어도 안가겠다고 하면 협박에 골방을 내리먹여 결국은 강제로 끌려갔으니 우리는 이를 일컬어 '징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강제로 일본 군대에 끌고 간 것을 '징병'이라고 부르듯이.

당시 징용의 전형적인 장면을 조정래 작가는 그의 대하소설 '하리랑'에서 절절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한 장면을 인용해본다. 『김장섭은 맥이 풀려 텅텅터벅 걸음을 옮겼다. 벌써 삼사 년 전부터 사람들이 징용에 끌려 갔다. 해마다 그 수가 불어나서 조마조마하며 살았는데 결국 자신에게도 닥친 것이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까...?' 김장섭은 무슨 수를 쓰든 징용에 끌려가고 싶지 않았다. ... 식구들과 2년씩이나 헤어진다는 게 너무 불안했다. 노임을 준다는 말도 믿을 수 없었다. 그동안 속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김장섭은 집으로 가기 전에 한기팔의 집에 들렸다. “아재, 시방 면사무소 다녀오는 길인데, 징용 나가게 되었고만요.” “뭣이여!” 한기팔이 소스라쳤다. “아이고메, 고것이 언제 당가?” 월전택이 부엌에서 뛰쳐나왔다. “널 아침 7시다요”』

소설 속의 김장섭, 아니 현실의 군함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한 분인 최장섭 옹은 그 고통의 한도막을 2014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고무로 만든 와이어를 기계에서 벗겨서 매를 만들어서 후려 치니까 피가 묻어나고 살점이 떨어지고 세상에, 우리한테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차라리 자살하는게 낫지 우리 나이다 열다섯, 열여섯 그랬는디...” 최 옹이 하는 말은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배가 고파 행여 탈출이라도 했다가 붙잡혀온 조선인에 대한 일본 감독의 처벌 장면이다. 감히 반항은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화 군함도를 본 그는 사실과 영화가 많이 다르다고 지적도 했었는데 올해 1월 92세의 나이로 한서린 세월을 가슴에 묻고 사망했다.

같은 소설의 다음 대목도 당시의 징용 실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징용을 피해 숨어드는 장정들이 많아지자 일본은 아예 대놓고 붙들어 갔다.

『“전원 집합하라!” 이시바시는 야산 자락의 바위 위로 올라서며 외쳤다. 차에서 내린 경찰과 읍사무소 직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냥할 징용자는 300명이다. 1개 조를 4명씩 편성해 이들 동안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인 경찰에게 경고한다. 같은 조선 사람이라고 사정을 봐 주거나 임무 수행을 철저히 못하면 가차없

이 처벌할 것이다!” 이시바시는 외침과 함께 칼을 휘 뺐아 들었다. … 잡혀 온 남자는 마흔다섯이 넘어 보였다. “이거 어째 이러. 나는 벌써 4년 전에 일본 낭인들한테 속아 규슈 탄광에서 2년 때우고 온 사람이여. 주재소에서 다 아는 일이어!”

두둑하게 쳐준다는 월급은 50엔 이상으로 꽤 괜찮은 수입이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사기였다. 숙식비, 숙옷 구입비, 세금, 건강보험료, 심지어 작업도구 대여료라는 명목으로 이리 떼고 저리 떼고 꼴랑 5엔이 남는데 이마저도 전시 공채 사라고 해서 실제로 받는 월급은 무일푼이었다. 실제로 앞의 최장섭 옹도 돈 한푼 못받고 귀국했다.

군함도 섬 위에는 당시로는 최신식 아파트에, 당구장, 극장, 목욕탕 등 일본인들을 위한 온갖 위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6.3헥타르 작은 섬 전체가 화려한 미니 도시로 각광받고 있었지만 섬 지하, 즉 해저 1,000미터까지 파고 들어가는 갯도는 평균 온도가 40도를 넘기고 비좁은 갯도안에서 누워야 채탄이 가능한데 하루 12시간의 중노동은 또 할당량을 채워야만 했다. 섬위는 일본인의 천국이 있고 섬 아래는 조선인의 지옥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징용으로 끌려온 조선 청년들의 말 그대로 막장 인생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고 있었다. 섬에 끌려온 조선인은 공식 집계 800여 명이고 45년 일본의 패망때까지 섬에서 사망한 조선인이 확인된 것만 134명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메탄가스 폭발에 갯도 붕괴가 다반사였으니…



▲ 징용 조선인이 군함도 갯도안에서 채탄하는 장면. 오른쪽은 또다른 탄광인 아소 탄광이라는 곳의 벽에 한 징용 조선인이 남긴 절규의 글.

2015년 7월 5일 독일 본. 제 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가 진행됐고 일본이 무더기 신청한 23개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2009년부터 은밀하게 공작질을 해서 마침내 결실을 이룬 것이다. 저가운대는 징용으로 조선인을 끌어와 강제노역을 시킨 곳이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군함도와 나가사키 조선소 그리고 몇개의 탄광 등 모두 7개나 포함돼 있었다. 그래도 정부랍시고 한국은 일본의 이런 작태를 알고 철회시키기 위해 애쓰는 시늉은 했다.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생존해 있던 징용 피해 노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항의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의 간특함을 막아내지 못해 결국 인류 보편적 가치에 완전히 역행하는 부도덕한 산업 유적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버젓이 등재되는 기가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역시 일본의 쇠가루 위력은 대단했다.

최종 결정이 있기 10여 일 전인 6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칠뜨기 외교장관 윤병세는 도쿄에서 일본 외무상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인정해줄기로 했다. 대신 일본은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일본 국민을 포함한 모든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성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약속하고 흐트해했으니 한심해서… 이러니 이후 또다른 이슈였던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돈 꼴랑 10억엔 받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말도 안되는 합의서에도 덜렁덜렁 사인을 했겠지… 일본은 등재 후 3년이 지나도록 군함도 관광지 입구 안내문에조차 징용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일본이 배짱을 부리는 행태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올해 6월 27일 추곡서

한을 보내 당초의 합의를 이행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반응이 없다. 왜 이렇게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간이 배박으로 나오는 것일까?

2012년 5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고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시작된 소송인데 엇치락 뒤치락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감격도 잠시. 해당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해서 다시 대법원에서 다루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확정 판결을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일본 기업들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자기들이 내린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梁承泰 1948 ~)는 참으로 추잡한 짓을 한다. 일본과 가급적 고분고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박근혜의 의중을 잘 간파하고 있던 양씨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박근혜 정부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우려해 알아서 긴다. 방법은 이유없는 고의적 재판 지연이었다. 마냥 끝다보면 고령의 원고들이 아마 사망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외교부를 통해 한일 관계를 참작해달라는 은근한 압력도 들어왔다. 때마침 양씨는 자신의 대법원장 재임 시 상고법원 시스템 도입을 성사시켜 자신의 권력을 한껏 부풀리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다. 한마디로 재판 지연을 미끼로 딜을 시도한 것이다. 요즘 사법 농단이라는 말이 모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농단의 한복판에 양승태라는 추잡한 대법원장이 있고 그 추한 사건의 결정관이 바로 징용 피해자 사건 최종판결 지연이었다. 같은 민족인 징용 피해자들의 원한과 민족의 자존심은 내팽개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격정해주는 이런 반역적 행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심판해야 옳을까. 평생 법조인으로 오만가지 추잡한 기록들을 철철 넘치게 남기고 구질구질하게 임기는 다 채운 그는 지난 2017년 9월 22일 퇴임하면서 퇴임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 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다. 본인이 그런 짓을 했으니…



▲ 2016년 청와대 회동 시 두사람이 화기애애하게 건배를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이렇다. (양승태 : 징용 피해자 판결도 행여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부담되실까 그냥 서랍에 꼭 묵혀 두고 있어요. 상고법원 도입 좀 어떻게 허락해주세요~) (박근혜 : 내가 미쳤나, 쓸데없이 니 권력 키워주게?)

2018년 10월 30일. 만지저민이나마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 농단으로 5년이나 미뤄왔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마침내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면 뭐하나 원고측 피해 노인들은 재판 지연 5년 사이에 다 돌아가시고 딱 한 분이 남았다. 판결이 나오기가 무섭게 일본 정부는 즉각 발끈해서 불쾌감으로 수선을 떨었고 일본 외무상은 우리대사를 불러 오만불손하게 딱딱거렸다. 이런 간 큰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는 데에는 바로 양승태같은 최고위층의 민족 반역자들이 대한민국의 특질 거리기 때문이니 자업자득에 유구무언이로다! ■

〈16면에 이어〉 "편의점, 정신 안차리면 베이퍼시장 잃어"

그의 뼈아픈 충고는 계속된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과거 5년을 되 돌아보며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지? 라고 반문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다." 그저 그런대로 비즈니스를 꾸려가는 그 어떤 편의점 업주에게도 참으로 따끔하고도 충정어린 충고가 아닐 수 없다. 비단 전자담배 뿐이겠는가 싶다.

참고로 영국은 캐나다의 뒤를 이어 일반 담배 뒷벽 전시 금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아 손님눈에 잘 띄게 전시해놓고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하디씨가 같은 조언을 하는 것이다. 뒷벽 공간이 됐든, 기존 일반담배 가리개 보 관함과 이웃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든 아니면 일반 공간에 특별 코너를 조성하든 편의점 업주들은 공간 전시에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전시도 전시지만 적절하고도 매력적인 안내 광고물 활용, 종업원 교육까지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영국의 일반 담배 소비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BAT가 차세대 제품(NGP ; Next Generation Products) 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발빠르게 목표삼아 왔다. 올해 초에 회사는 신규 제품 바이프 이펜 3(Vype Epen 3)를 출시하면서 영국내 직영 매장에서 맹렬히 판촉 활동을 벌였고 이 제품만을 위해 43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정도였다. 차세대 제품을 위한 시장 선점의 일환이다.

차세대 제품 운운하니까 최근 캐나다 최대 담배 회사인 임페리얼이 신규 계약서를 편의점 업소들과 체결하며 이 용어를 앞세운 것이 생각난다.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도 당연한 것이 임페리얼은 BAT의 캐나다 법인이기 때문이다. 영국 편의점 업계는 자유롭게 전시하고 팔아도 무방한 전자제품 매출 증대를 위한 전문가들의 글이 차고 넘친다. 모두가 장미빛 전망이었는데 모처럼 최대의 담배 회사 차세대제품 총책이 편의점 업계의 미래를 위해 매우 값진 조언과 경고를 던진 것이 편의점 업계 입장에서 울림이 크게 다가온다. 비록 온타리오는 베이퍼 제품을 일반 담배처럼 가리고 판매해야 하지만 편의점 업주들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다듬는다는 측면에서 새겨야 할 충언이다. ■

스카보로 지구협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스카보로 정기총회 및 송년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12월 11일 (화) 9: 30 P.M
- 장소 : 샤론 가든
3601 Victoria Park Scarborough ON
TEL (416) 885 - 8886
- 연락처 : 지구협회장 416-759-4503



스카보로 지구협회장 엄중호

〈13면에 이어〉 NCACT, 온주 불법담배 실태 발표



▲ 경찰들의 몰래 카메라에 포착된 불법담배들. 외관은 흡사 브랜드 담배로 보이며 담배가게 일명 스모크 쉼에서 진열된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

가게 일명 스모크 쉼에서 거래된다. 그런데 정부는 담뱃갑 포장 통일화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이는 불법담배 제조를 더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지하시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정부의 담뱃갑 포장 통일화는 담뱃갑 구조에 있어 소위 슬라이드셸 포맷(slide and shell format)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뚜껑을 열고 닫는 모양의 담뱃갑이 대부분인 정품 담배인데 이 디자인을 없애고 옆으로 밀어서 탄알 나오듯하는 구조의 담뱃갑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불법담배 제조가 더 수월해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불법담배는 정품과는 반대로 담뱃갑 디자인이 슬라이드셸 포맷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어떤 것이 정품이고 어떤 것이 불법 제품인지 구별해내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불법담배 시장은 지금보다 더 번창할 것이다. 불법담배를 통해 얻은 수익자금이 조직범죄단으로 흘러들어가 사회 전체의 치안을 더 불안하게 하고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가져온다는 공안 및 경제적 피해 또한 어김없이 지적됐다. 모두 협회를 비롯한 OCSA, CCSA가 오랜 세월 부르짖어온 주장들이며 업계와 민간 공익단체가 함께 동일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불법담배에 대한 전향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을 구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수당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다. ■

오웬사운드 지구협회 송년 파티

- 일시 : 2018년 12월 9일(일)
오후 6시부터
- 장소 : Stone Tree Golf Club
318087 HWY 6 & 10
TEL (519) 376 - 7899 (ext.111)
- 연락처 : 오웬사운드 회장 허창훈
TEL (519) 323 - 4311



오웬사운드 지구협회장 허창훈

OKBA 지구협 회장 전화번호

- 광역토론토 지구협회 -

-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 895 - 1277
- New Market**
회장 금동진 (905) 836 - 6429
- North York**
회장 김정렬 (416) 665 - 6709
- Peel**
회장 이수봉 (905) 813 - 1333
-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 471 - 8079
- Scarborough**
회장 엄중호 (416) 759 - 4503
- Toronto East** *GTA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김종범 (416) 363 - 9404
-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 975 - 0365
-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 604 - 3116

- 남서부 지구협회 -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 (519) 756 - 0099
-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 (905) 679 - 4812
- London** *남서부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오세정 (519) 432 - 6672
-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 354 - 1313
- Waterloo**
회장 최상경 (519) 579 - 8130
- Windsor**
회장 윤문성 (519) 326 - 1832

- 동북부 지구협회 -

- Durham**
회장 이현식 (905) 579 - 2500
- Huronia**
회장 진재원 (705) 487 - 2005
-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 967 - 9998
-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 323 - 4311
-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 (705) 652 - 6323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OKBA 온타리오 한인상업인협회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공지사항 | 실업뉴스 | 기사판 | 실업뉴스PDF 보기 | KBA협동조합 특별세 | KBA협동조합 공동구매

아이디어: | 비밀번호: | 회원가입 | 비밀번호 찾기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OPEN
등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OKBA PROGRAM STORE
OKBA Exclusive Deal

Weston Bakeries 배달서비스	Merchant Services Preferred Pricing Program	OKBA PROGRAM STORE 공지사항	OKBA Exclusive Deal 협회운영	SOS SAVE OUR STORES www.sosstores.com
2018년 2.25~3.24	2018년 2.25~3.24	2018년 2.25~3.24	2018년 2.25~3.24	2018년 2.25~3.24

협회사계 | 협회조직 | 협회정관 및 내규 | 회원가입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지구협회소개 | 찾아오시는 길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tario M9C 1C2 대표전화: (416) 789-7891 / 팩스번호: (416) 789-7834

상업전화 1.888.789.7892



OKBA PROGRAM STORE

Strong Retailers' Network

- 독립편의점 네트워크 구성 중점
- 프로그램 스토어 전담팀 운영
- 가입 업소 직접 방문
- 문제점 및 업소운영에 대한 상담
- 각 업소에 맞는 운영안 제시
- POS 시스템의 운영으로 자료 축적을 통한 공급,유통 환경 개선





■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 (416) 867-14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 담배회사 및 관련업체

Imperial Tobacco Canada ----- (800) 379-7629
 JTI MacDonald Corp ----- (800) 268-2068
 Rothmans Benson & Hedges ----- (800) 387-8555
 Kretek ----- (905) 625-1169
 House of Horvath Inc. ----- (416) 534-4254
 Scandinavian Tobacco ----- (866) 837-1807
 Casa Cubana ----- (514) 737-0066
 GVA Canada Inc ----- (416) 573-8085
 National Smokeless Tobacco Co. ----- (519) 208-5138
 Bic Inc ----- (416) 742-9173
 Nibo Group Inc. ----- (905) 479-0022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 (905) 568-7909
 (800) 387-8400
 Nestle Waters Canada ----- (519) 763-9462
 Lasseonde ----- (905) 791-5300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Parmalat ----- (905) 829-0555
 Sealtest / Natrel ----- (416) 442-2300

■ 스낵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Old Dutch Foods Ltd. ----- (800) 387-2273
 Krispy Kernels ----- (800) 461-7337
 South Cove ----- (905) 829-3666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Unilever Canada Inc ----- (866) 888-2775
 Fruti Distributing ----- (866) 663-3231

■ ATM / Debit

TD Merchant Services ----- (888) 663-6634
 Touch Cash -----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 Solution ----- 1- (888) 554-7355

■ 잡지

Metro News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변호사 박재현 ----- (905) 527-0202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TD한인금융센터 ----- (416) 250-5855 (손증호 ex 231)
 이방록 회계사 ----- (416) 221-2009
 오중찬 보험 ----- (416) 602-7083
 최창근 모기자 ----- (647) 928-7313
 이은진 회계사 ----- (416) 802-3870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중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Label & Bag Depot ----- (416) 432-2937
 Ubix Communications ----- (416) 492-6022 (Ex.221)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달콤한 휴식

신제품

- 초콜릿 브랜드 1위
- KIT KAT, 해당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며 14% 성장*
- 3가지 맛 출시



자세한 내용은
도매업자에게
문의하세요!



버블에서 ...느껴지는... 마성의 맛

- 시장 진출 기회 증대
- 더욱 세련된 모양
- 속 안을 가득 메우는 트러플

*Nielsen TL KIT KIT L12W p/e 2015년 12월 12일
상표 소유 / PROPRIÉTAIRE DES MARQUES: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 SUISSE.
라이선스 소유자 / LICENCIÉ: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2018.11.4~2018.12.1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8년 11월 4일부터 2018년 12월 1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Lays XL
2/\$6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